

‘해촉’ 통지 발단, 열악한 시간강사 처우 개선 계기 될까



후마 - 시간강사 갈등, 왜?

양윤혁 기자 yangyun0820@khu.ac.kr

“일방적 대학 구조조정 반대한다!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시간강사 부당해고 철회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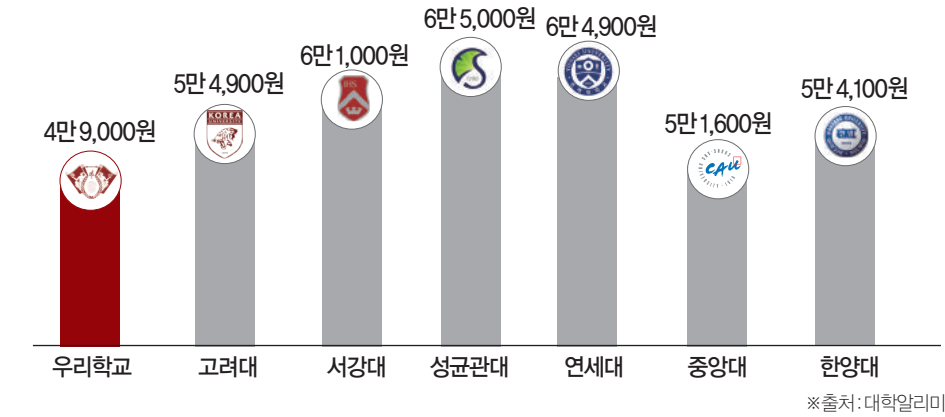
지난 12일 정오에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 ‘후마니타스 장례식’이 진행됐다. 우리학교 학생과 시간강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경희현재리포트’가 주최한 행사였다. 20명 가량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가 강사를 ‘그때그때 강의하는 소모품’으로 취급하면서 ‘행복한 인문학’과 시민성을 가르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후마 출범 당시 ‘성숙한 인간’을 키운다는 교육목표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시간강사 해촉문제가 불거진 뒤 서울캠에는 관련 대자보가 게재됐다. 교과과정 개편과 맞물려 후마 소속 시간강사의 처우 문제가 이슈가 됐다. 후마에는 타 단과대학에 비해 소속된 시간강사가 월등히 많다. 대학알리미 공식 자료에 따르면 후마는 전임교원 비율이 서울캠 34.1%, 국제캠 24.8%다. 전체 단과대학 평균인 56.1%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비율이다.

2015학년도 2학기 교과과정개편에 따라 서울캠에서는 45명의 시간강사가 해촉됐다. 국제캠 후마 측은 시간강사 해촉 인원을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캠 역시 시간강사강좌 수가 2015학년도 2학기 286개에서 2016학년도 1학기 179개로, 총 107개 줄어들었다. 시간강사들이 대개 1~2개의 정도를 담당한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국제캠도 서울캠과 비슷한 정도의 해촉 인원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캠 후마에서 해촉된 시간강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통해 자신들의 상황을 알렸다. 이후 전임교원, 객원교수, 시간강사를 포함한 후마니타스교육자협의회(교협)를 구성했고, 이를 계기로 시간강사 측과 후마 측은 시간강사의 처우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논의 과정에서 교협 측은 후마 측에 ▲교과과정개편에 시간강사 참여 ▲시간강사 처우 개선 TF운영을 요구했다. 후마 측은 이를 받아들이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상호 근거 없는 비방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교협을 비롯해 강사모임에서는 이를 독소 조항으로 판단했다. 학교와 시간강사가 고용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시간강사 개인의 SNS 이용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결국 양 측은 최

2015년도 주요 대학 시간당 평균 강사 강의료



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협, 후마와 합의 실패

결림들은 ‘근거없는 비방 금지’ 선결 조건

이후 강사 모임은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2일에 있었던 후마 장례식도 이 활동의 일환이었다. 지난 16일에는 강사모임, 후마대학생위원회와 단과대학 학회 등의 단체가 참여해 ‘시간강사 부당해고 철회 및 대부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학당국이 시간강사를 해고하고도 해고가 아니라 ‘강의 미의뢰’라고 이야기한다. 중복수업을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를 비판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후마니타스 교육이념을 후마 스스로가 버리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시간강사의 처우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간강사들은 현재 노동 안정성과 임금 문제를 겪고 있다고 토론했다. 시간강사가 느끼는 고용불안의 배경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시간강사들은 계약방식에 있어 ‘학기’ 단위로 위촉된다. 통상적으로는 최소 2학기 이상 한 학교에서 수업을 맡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계약이 학기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학기 말마다 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시간강사 A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간강사들은 학기 말만 되면 강의 위촉에 관한 연락을 기다리며 휴대전화만 쳐다보고 있다”라며 “다음 학기는 어떻게 될지 불안에 떠는 것이 일상이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학교 시간강사규정 7조에는 ‘연속하여 최대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항목

이 있다. 따라서 관행적으로 8학기 째 강의를 맡는 시간강사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더라도 무조건 한 학기를 쉬 이후에야 다시 강의를 맡을 수 있다. 소위 ‘8학기제’라고 불리는 이 조항은 후마 측과 시간강사 측 모두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시간강사들은 ‘8학기제’가 고용불안에 일조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이전에 해촉될 수 있어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말한다.

시간강사들은 ‘강의 평가 점수’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전임교원은 강의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업적평가에 반영되지만 실질적인 구속력은 없다. 반면에 시간강사는 강의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 학기 위촉 여부가 좌우된다. 이에 대해 서울캠 후마 유정완(영어학부) 학장은 “연속 학기 위촉제한이나 강의 평가 점수가 시간강사들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교과과정 개편 자체는 현재 규정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대학주보 1603호 3면, 교과과정 개편, 시간강사 의견에도 귀 기울여야)

시간강사 감축 추세

“후마만큼은 달랐으면”

방학에 강의가 없는 시간강사들은 임금에 관해서도 곤란을 겪고 있다. 이는 시간강사가 보편적으로 겪는 상황이지만, 우리학교는 사립대학 평균보다도 강의료가 낮은 수준이라 더 심각하다. 대학알리미 공식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학교 시간강사의 시간당 급여는 평균 49,000원 정도로, 사립대학 평균 50,600원보다 1,600원 적었다. 다른 주요 사립대학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1만 원 이상으로 벌어진다. 시간강사 A씨는

“시간강사들은 방학기간 동안 급여가 없고, 강의 시간 외에 준비 시간도 고려되지 않는다”며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급여로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밖에도 학기가 끝남과 동시에 시간강사들은 학내 와이파이, 중앙도서관, 종합정보시스템 이용이 제한된다.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시간강사들은 학교에 애정을 갖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시간강사 B씨는 “시간강사를 줄이는 것은 사회적 흐름이지만, 후마가 출범할 당시에는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모두 지위와 상관없이 힘을 합쳐 훌륭한 커리큘럼을 만들어 학교를 발전시키자는 목표로 함께했다”며 “전반적인 시간강사 감축 흐름에 우리학교조차 함께 해온 강사를 내치는 모습에 씁쓸함을 느꼈다”고 토론했다.

복수의 시간강사에게서 여러 어려움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학교 측에 의견을 공식적으로 피력할 통로나 교섭할 수 있는 통로는 마땅찮다. 시간강사 A씨는 “학교 측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전무하다”며 “이번 교과과정 개편에서도 수차례 논의 위원회가 열렸지만 시간강사가 참여한 적은 없었고, 직접 참여가 아니더라도 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없었다”고 말했다. 후마 측에서는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 전임교원, 객원교원, 학생 대표의 참여가 있었지만 시간강사의 참여는 없었으며, 시간표 편성 시 요일 및 시간 조정이나 학기 조정 등에 대해서는 PD(Program Director)교수 또는 행정실과 논의를 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또한 후마 출범 이전 개별 단과대학에서 교양강좌를 만들던 시절과 비교해 시간강사 A씨는 “교양대학이 비대화되면서 예상치 못하게 공동체적 관계가 파괴됐다”며 “후마는 교원 사이의 연대가 없어 학교 측과 논의할 통로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협 측은 이와 같은 시간강사가 당면한 문제들을 당장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시간강사와 함께 논의해가자는 입장이다. 대학당국은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결국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진행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까지 선결조건으로 걸려있던 ‘상호 근거없는 비방을 금지한다’는 조항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향후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때문에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논란은 6개월이 지나도록 제자리 걸음이다. 이번 학기도 5주 남은 가운데, 학생에게는 반값고 시간강사에게는 힘든 방학이 다가오고 있다.